

1975.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Revelation.
 차영배 역. 계시록. 백합출판사, 1978.
- Martin, Ralph P.
"Ephesian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Nashville : Broadman, Vol. VI
- Morris, Leon.
"Luke." Tyndale NT Commentaries. IVP, 1974.

4. 사전

- Bauer, W.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T.
- Arndt, W.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1974.
- McClintock & Strong
Cyclopedia of Biblical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Literature. New York : Harper, 1892. I.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 XXI.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0.
- Kittel, Gerhar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X.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 Eerdmans, 1968.

‘申命記 神學’에 나타난 契約의 問題

姜 勇 元

(본 연구소 연구원 · 고신대 전임 강사)

차 례

- | | |
|-----------------------|-----------------------|
| 1. 序論 | 4. 契約更新文書로서의
申命記 |
| 2. 申命記에 關한 基礎
的 論究 | 5. 申命記 神學의 契約
的 構造 |
| 3. 申命記 神學 試論 | 6. 結論 |

1. 서론

(1) 문제의 진술

신명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 중의 하나이다.¹⁾ 이

1) Samuel J. Schultz, *Deuteronomy - The Gospel of Love* (Chicago : Moody

것은 신명기가 신약 성경에 비교적 많이 인용되었다는 사실과,²⁾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신명기를 인용하셨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사해 문서 발굴 상황을 보면 신명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구약은 에스더서 외에는 다 발견되었는데 신명기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 많이 발견되었다.³⁾

또한 신학자들은 신명기서를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⁴⁾

이와 같은 중요한 책이 가장 많은 비평을 받아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은 신명기의 모세 저작설과 신명기의 고대성을 주장하는 데 노력해 왔다. 최근에 고대 근동 지방의 조약 문서 연구가 신명기 연구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 연구는 신명기의 모세 저작설을 지지하며, 신명기를 계약 갱신 문서로 봄으로 신명기 신학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오경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명기서의 신학’을 검토하기 위해 오늘 보수 신학자들의 노력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신학의 한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ress, 1971), p. 7. “The book of Deuteronomy is the most important book in the Old Testament from the standpoint of God’s revelation to man.”

2) Aland, Black, Metzger, Wikgren 등이 편집한 *The Greek New Testament*의 인용 목록(Index of Quotation)에 보면 신명기에서 인용한 구절이 약 200회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약이 많이 인용된 구약은 이사야, 시편, 신명기, 창세기 등이다.

3) cf. 오병세, “사해 문서와 구약 성경 연구,” 「고신대 논문집」 9 (1981. 5), p. 7. 시편이 27부, 신명기 25부, 이사야 18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각각 15부 씩 발견되었다.

4) 비평가들은 D문서를 ‘알키메데스의 점’(Point of Archimedes)으로 간주한다. Von Rad 나 S. Herrmann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본다.

(2) 관계 문헌 연구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명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활발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신명기 신학에 관한 글은 김정준 교수의 글이 세 편 있으며,⁵⁾ 김이곤 교수의 글 중에 약간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⁶⁾ 그외에 신명기에 관한 연구 자료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보수 신학적인 견지에서 신명기 신학을 다룬 글은 없으며, 신명기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 윤영탁 교수의 글이 유일한 연구이다.⁷⁾ 1945~1977년 사이에 발표된 석사 학위 논문 중에도 신명기 신학을 다룬 것은 전무하며, 배상길의 “신명기에 나타난 계약 전승”(연신원, 1969)이라는 논문이 신명기를 다룬 유일한 논문이다.⁸⁾

이미 외국에서는 신명기 신학 연구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 연구에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질 문제의 요소는, 신명기에 관한 기초적 논구(Ⅱ장), 신명기 신학 시론(Ⅲ장), 계약 갱신 문서로서의 신명기(Ⅳ장) 및 신명기 신학의 계약적 구조(Ⅴ장) 등이다.

5) 김정준, 「구약 신학의 이해」(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4), 제3장 “신명기의 신학적 과제”; idem, “신명기 신학자,” 「신학사상」 13(1976. 6), pp. 353~382; idem, “오늘을 사는 신학” 「기독교 사상」 212(1976. 2), pp. 45~57.

6) 김이곤, “오경의 자료층과 그 특성,” 문희석 편, 「오늘의 오경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p. 11~62.

7) 윤영탁, “신명기 연구,” 「신학지남」 45-1(1978. 3), pp. 8~27.

8) 한국신학도서관 협의회 편, 한국신학 관계 석·박사 학위 논문 목록(1945~1977)

2. 신명기에 관한 기초적 논구

(1) 명칭 문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라고 불린다. 이 명칭은 신명기 17:18의 'misheneh hatorah hazot'를 LXX가 'to deuteronomion touto'로, Vulgate가 Deuteronomium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한 것이다. MT의 뜻은 '이 율법의 반복' 혹은 '이 율법의 복사'를 뜻하는데, LXX가 '둘째 법'이라고 한 것은 여자적(如字的) 번역이 아니며, 이 번역에서 'Deuteronomy'라는 명칭이 나온 것이다.¹⁾ 이 책은 앞서 기록된 율법서의 내용과 차원을 달리하는 세 율법을 준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율법을 재확인하고, 재교육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다.²⁾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책명은 첫 구절을 따서 'eleh hadebarim'(이는...말씀들이다) 혹은 줄여서 'debarim'(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다. 이 명칭은 신명기서의 내용을 더 잘 묘사해 주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³⁾

(2) 기록 시기 및 저자 문제

1) Edward 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1953), p. 93; M.G.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Grand Rapids: Eerdmans, 1963), p. 47.

2) 홍 반식, 「구약총론」(서울: 성암사, 1978), p. 110.

3)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신명기의 '계약 갱신 문서'로서의 성격을 이 명칭은 잘 나타내 준다. cf. M.G.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Grand Rapids: Eerdmans, 1963), p. 47, "Since ancient suzerainty treaties began similarly, the Jewish title draws attention to one of the clues which identify the literary character of this book."

De Wette는 1805년 그의 학위 논문 *Dissertatio Critica*에서⁴⁾ 요시야 왕이 B.C.621년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왕하 22:8 이하) 원신명기(*Urdeuteronomium*: 신 12 ~ 26장)였다는 학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 학설은 그후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립되어가는 듯이 보인다.⁵⁾ 문서 비평가들은 이 원신명기(혹 신명기 법전, D)의 연대를 7세기로 단정짓고, 다른 J.E.P. 문서들도 이 D문서를 중심해서 전후 연대를 측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학설은 구약 역사, 구약 문학, 그리고 구약 종교사 연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비판적 입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혁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처음에 요시야 왕이 발견한 문서를 신명기 12 ~ 26장으로 보고 그것을 원신명기라고 본 이유는 ① 이 신명기가 요시야 왕 이전의 문헌이나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사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② 이 신명기는 성전에서 발견된 것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의 기초가 된 율법책이라는 점 ③ 신명기가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 이후의 저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 ④ 내용에 의하면 그 율법책이 7세기에 기록되었음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⁶⁾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과 열왕기하와의 유사점을 열거함으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의 기초가 된 책이 신명기서

4) 원명은 *Dissertatio Critico-exgetica, qua Deuteronomium a prioribus Pentateuchi libris diversum, alias cuiusdam recentioris auctoris opus esse monstratur.*이다. (A Critical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Canonical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5) Ott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New York: Harper & Row, 1975), p. 173.

6) L.B.Paton, "The Case for the Post-exilic Origin of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7(1928), pp. 324 ~ 326.
cf. 박 대선, 김 찬국, 김 정준 공저, 「구약 성서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pp. 85 ~ 86; 윤 영탁, *op. cit.*, pp. 11 ~ 12;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pp. 46 ~ 47.

라고 주장한다.⁷⁾ 또한 비판 학자들이 그때에 발견된 책이 현존하는 신명기가 아닌 원신명기였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열왕기하 22:8,10,23:2에 기록되기를, 발견한 율법책을 단시간에 세 번이나 통독하였다고 했는데 현존하는 신명기는 그와같이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열왕기하 22:8,10,23:2의 본문에 ‘읽는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22:8,10은 23:2과는 달리 단순히 읽었다는 표현뿐이며, 전권을 통독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또한 23:2의 ‘모든 말씀’도 22:8,10에 비추어 볼 때 전 율법책을 읽었다고 해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본문에 이 율법책이 평범한 율법서나 율법의 두루마리가 아닌 특별한 책임을 나타내려고 정관사를 붙여 ‘그 율법의 책’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문법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모세 오경’임에 틀림 없다.⁸⁾ 이 발견된 책은 신명기 31:24–25에 의하면 일찌기 모세가 이 율법서를 기록한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데 위 사람에게 그 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하였던 책이다. 이렇게 구별되어 보관되었던 율법책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악정하에서 잃어졌으나 성전 수리로 인해 다시 발견되었던 것이다.

신명기의 저작 시기 문제는 비평 학자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

7) 학자들의 견해 중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보면 ① 예배 차소의 중앙화(왕하 23:8,9; 신 12:5~18) ② 천체 숭배 금지(왕하 23:4,5,11,12; 신 17:3) ③ 아이 희생의 금지(왕하 23:10; 신 12:31; 18:10) ④ 유월절 엄수(왕하 23:21~23; 신 16:5~7) ⑤ 신집한 자의 박멸(왕하 23:24; 신 18:11,12) ⑥ 종교적 매음 행위 금지(왕하 23:7; 신 23:18) ⑦ 석상 금지(왕하 23:14; 신 7:5; 12:3) ⑧ 이방신 금지(왕하 23:13; 신 12,13) 등이다. 예배 차소의 중앙화 문제는 후에 다룰 것이다(V,D). 그외의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얼마든지 오경의 다른 곳과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8) F.Delitzsch, *The Book of Kings*(Grand Rapids : Eerdmans, 1950), p. 477. Edward J.Young도 이를 지지한다.

고 있다. 어떤 이는 사무엘 시대까지 올라가며, 또 어떤 이는 포로 후시기라고 주장하여 다양하다.⁹⁾ 그리고 출처(기원)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왕국설, 북왕국설, 제사장 씨를 기원설, 예언학파 기원설, 지혜학파 기원설 등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비평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의 모세 저작설이 보수 신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¹⁰⁾ 모세의 저작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대략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¹⁾ ① 신명기가 사용하는 독특한 성호인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은 출 3:6, 15:2; 18:4에서 사용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¹²⁾ ② 신명기가 왕국 분열 시대 이전이라는 증거로 가나안 이방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③ 출애굽의 기억이 생생하게 표현된다. ‘종 되었던 집’¹³⁾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¹⁴⁾ ‘강한 손과 편 팔’¹⁵⁾ 등은 모두 모세가 이스라엘 청중의 생생한 기억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인다. ④ 가나안 정복이 미래의 일로 표시

9) 이 문제에 관하여는 G.T.Manley, *The Book of the Law*(Grand Rapids : Eerdmans, 1957), pp.17~22; J.A.Thompson, *Deuteronomy*(Leicester : IVP, 1974), PP.47~68; R.K.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 Eerdmans, 1969), pp.637~653를 참조하라. Thompson의 글에 의하면 ① 모세 시대(Kline, R.K.Harrison, M.H.Segal) ② 히스기야, 요시야 이전 시대(Oestreicher, A.Welch, Brinker, Robertson) ③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7C)(Von Rad, G.E.Wright, E.W.Nicholson, R.Clement, N.Lofink) ④ 포로 후 시대(Hölscher, R.H.Kenneth)

10) 신명기의 모세 저작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서적이 G.T.Manly의 앞에서 인용한 책이다.

11) cf. E.J.Young, *My Servants the Prophets*(Grand Rapids : Eerdmans, 1952), pp.211~212; G.L.Archer,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Chicago : Moody Press, 1964), pp.257~259; 홍 반식, *op. cit.*, pp.58~64, 112~118.

12) 신명기 1:11,21, 4:1, 6:3, 12:1, 26:7, 27:3, 29:25.

13) 5:6, 6:12, 7:8, 8:14, 13:5, 15:15, 24:18.

14) 5:15, 15:15, 16:12, 24:18, 22.

15) 4:34, 5:15, 7:19, 9:29, 26:8.

된 점 ⑤ 브낫세와 요시야 왕 때의 시대 사상에 미루어 볼 때 무의미한 내용이 많다. ⑥ 모세가 저자라고 밝힌 일(1:6,9; 5:1; 29:2 등) ⑦ 다른 곳의 증거(마 19:8; 놀 24:27,44; 고전 9:9; 히 10:28) 등이다. 또한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헷 족속의 종주권 조약과 신명기서의 연관성 문제는 본서의 저작 시기 문제나 구조적 통일성 문제에 빛을 던져 줄 것이다.

(3) 신명기의 통일성 문제

신명기서의 통일성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주로 단수, 복수의 문장(I-thou, I-you), 반복과 중복 기사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한다.¹⁶⁾ 그러나 비평학자들은 원신명기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¹⁷⁾ 신명기의 발전사도 여러 가지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단수, 복수 문제에 대해 Young은 “단수와 복수의 변화는 혼돈이나(Welch) 단일 저작성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수는 특수하고 부드러우며 개인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주 너의 하나님’과 같은 구절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권고의 이야기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겸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⁸⁾

1943년 M. Noth는 ‘신명기적’ 역사서를 제안하였다.¹⁹⁾ Noth는 그

16) cf. E.Sellin, F.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김 이곤, 문 회석, 민 영진 역편, 「구약 성서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 주) 187; 박 대선, 김 찬국, 김 정준, 「구약 성서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pp. 86, 87

17) S.R.Driver 1~3, 5~26,28; G.F.Moore 5~26,28; H.E.Ryle 5~26, (27: 9,10); J.E. McFadyen 12~26,28 (5~11도 가능); G.A. Smith 12~26(대부분), 1~11, 28~30(일부); cf. George Dahal, “The Case for the Currently Accepted Date of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7 (1928), p. 361.

18) Edward J. Young, *op.cit.*, p. 98.

책의 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신명기서에 나타난 종교적 개념과 연결된 해석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서에 이르는 책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그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네 개의 분리된 책으로 보지 않고,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큰 역사서의 네 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의 서두를 신명기서(1~3장, 혹 1~4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사경’(四經) (Tetrateuch)을 분리시키고, 신명기 1장부터 (31~34장 제외) 열왕기하 25장까지의 신명기적 역사서를 덧붙이는 것이다. 그후 그는 계속 신명기 27:1~8도 이차적인 요소로 분리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는 신명기서의 통일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명기서가 모세의 통일성 있는 작품임을 부정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신명기의 구조 문제에서 통일성을 주장한 사람은 Von Rad이다. 그는 신명기에서 유기적인 통일성을 보고, 그 근거를 고대 세겜에서 있었던 제의적 축제(Cultic Celebration)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의 신명기 분석을 살펴면,²⁰⁾

- ① 시내산 사건의 역사적 제시와 권고문(신 1~11장)
- ② 율법의 낭독(신 12장~26:15)
- ③ 율법의 체결(신 26:16~19)
- ④ 축복과 저주(신 27장 이하)

이와 같은 Von Rad의 주장은 신명기서의 통일성을 찾으려는 의도는 좋으나,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위적인 면도 없지 않다. 앞으로 다를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Von Rad보다 더 명확

19)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1948, 1957²)

20) Von Rad, “Das formgeschichtliche Problem des Hexateuch,” 김 정준 역, 「폰 라드 논문집」(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 49.

하게 신명기의 구조적 통일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신명기 신학 시론

(1) 구약 신학의 조직 원리

이 문제를 취급하기에 앞서 구약 신학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행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것이 본 논문이 다루려는 핵심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¹⁾ 구약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 신학을 서술함에 있어서 구약 신학의 중심(Center 혹은 Mitte)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고, 지금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Von Rad가 ‘신앙 고백’의 신학을 주장하기 전의 구약 신학은 대부분이 개념 중심이었고, 오늘날도 이 흐름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G.Hasel은 그의 책에서 구약의 중심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학자들의 구약 신학의 중심 개념을 광범위하게 논하였다.²⁾ Eichrodt(계약), E.Sellin(하나님의 거룩), Köhler(하나님은 주), Hans Wildberger(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 Horst Seebass(하나님의 지배), Günter Kline(하나님의 나라), G.Fohrer(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Vriezen(교제), Rudolf Smend(“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W.H.Schmidt(제 일 계명), Zimmerli(출 20:2의 “나는 …여호와 너

1) 이 문제에 관하여는 R.K.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p.417 ~441 ; G. Hasel, *Old Testament Theology : Basic Issue in the Current Debate* ; 김 정준, “구약 신학의 최근 동향,” 「신학 사상」 12(1976.3), pp.5~34를 참조하라.

2) G.Hasel, *op. cit.*, pp.77~103.

의 하나님”과 신 26:1의 “네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Hermann(신명기서) 등의 중심 개념을 논술하였다. 보수 신학자 가운데서 Payne은 유언(testament)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계약 신학을 논술하였고,³⁾ 가장 권위 있는 보수 신학의 계약 신학을 대변하는 책을 쓴 G.Vos는 그가 명백히 한 계약 신학의 개념에 따라 ‘계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의 체계를 서술해 나갔다.⁴⁾ 최근에 W.C.Kaiser는 ‘약속’(promise)이라는 주제로 그의 계약 신학을 전개한다.⁵⁾ Hasel은 구약의 중심 문제를 다루면서 어떠한 개념도 구약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중심점이 있다면 그것은 ‘동적인 단일화의 중심으로서의 하나님’(God as the dynamic, unifying center of the O.T.)이라고 말한다.⁶⁾ 그가 정적인(static) 조직원리 대신 동적인(dynamic) 원리를 말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제 이 문제는 신명기 신학의 중심점 문제에서 계속 다루기로 하겠다.

3) J.Barton Payne,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Grand Rapids : Zondervan, 1962).

4)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Banner of Truth Trust, 1948). Vos는 성경 신학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아 계시의 과정을 취급하는 주경 신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였다(p. 5.). 또한 그는 성경 신학의 네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The historic progressiveness of the revelation
- ② The actual embodiment of revelation in history
- ③ The organic nature of the historic process
- ④ Practical adaptability(pp. 5~9)

5) Walter C.Kaiser, “The Center of Old Testament Theology : The Promise.” *Themelios* 10(1974), pp.1~10 ; “The Promise Theme and the Theology of Rest,” *Bibliotheca Sacra* 130(1973), pp.135~150 ;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Grand Rapids : Zondervan, 1978) ; 그는 ‘약속’이라는 주제가 다른 구약의 주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이는데 실패한 듯하다.

6) G.Hasel, *op. cit.*, pp.100~103.

(2) 신명기 신학의 연구 개관

최근에 나타난 신명기 신학에 관한 논문들은⁷⁾ 주로 신명기에 나타난 특별한 주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신명기 신학만을 다룬 저서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⁸⁾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신명기 연구에서 차지하는 Von Rad의 위치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준다. Von Rad는 실제로 신명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⁹⁾ 그 영향은 오늘 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명기 신학의 연구 개관은 Von Rad의 사상을 살펴봄으로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Von Rad는 신명기서의 배후에는 서로 다른 전승들이 모여져 있으나 이것들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면서 신학적 통일성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¹⁰⁾ Von Rad는 신명기의 통일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은 '이 율법'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는 이 율법을 '여호와의 구원 의지의 수여 전체' (whole of the bestowals of Jahweh's saving will)라고 보았으며 독일어로 Willensoffnbarung(의지의 계시)으로 번역될

7) 최근에 나온 신명기 신학에 관한 논문 목록은 P.C.Craigie의 주석 *The Book of Deuteronomy*(NICOT), p.45를 보라.

8) 영문으로 된 저서는 R.E.Clement의 *God's Chosen Peop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Deuteronomy*(1968)가 있다. 이 책은 Von Rad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많은 비평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약 백성, 하나님의 선물, 예배의 의미 등의 주제를 다룬다.

9) Von Rad가 남긴 중요한 작품은 그의 첫 학위 논문인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Das Gottesvolk im Deuteronominium)"(1929), 9년 후에 쓴 "6경의 양식사 문제(Das formgeschichtliche Problem des Hexateuch)"(1938, 이것은 신명기 26장의 신앙 고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47년에 쓴 "신명기 연구(Deuteronomium Studien)"와 "신명기의 기원과 목적(Herkunft und Absicht des Deuteronomiums)," 1964년의 "신명기 주석"(Das fünfte Buch Mose : Deuteronomium) 등이 있다.

10) Von Rad,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I*(New York : Harper & Row, 1962), p.221.

수 있다고 한다.¹¹⁾ 또한 그는 능력있는 하나님이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선택 사상이 신명기의 창작이라고 보며, 그 근거는 사랑인데 여호와의 계약과 사랑의 동의어화(同義語化)는 새로운 신학적 사상과 표현이라고 한다.¹²⁾ 또한 신명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 목적이 순종과 충성에 대한 호소에 있는 것이다. 신명기의 주된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인데,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계명을 준수한다는 사상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흔하지 않은 특수한 신학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¹³⁾

Von Rad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한 장소에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요구에서 '하나의 제의'에 관한 신학을 발전시켰다(12:14, 18,26). 그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화를 말하는 것보다는¹⁴⁾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와 구별되며(12:2~7) 또한 그 금까지 행해 왔던 예배와는 구별되는 제사라고 본다(12:8~12).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유일한 여호와의 명체(신 6:4)와 연관되어 볼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연 종교에 대한 극히 전투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본다.¹⁵⁾

그리면 좀더 '하나님이 선택하실 장소'에 관한 Von Rad의 이해를 살펴보자.¹⁶⁾ 첫째로 여기에는 제의의 정화(Kultreinheit)라는 의미가

11) *Ibid.*, pp.221~222.

12) *Ibid.*, p.223.

13) *Ibid.*, pp.225~226. Von Rad에 의하면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soul"이라는 용어는 신명기에 8번 나온다 함.

14) 신명기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이 거하는 장소만을 말할 뿐이며, 이 장소에 예루살렘을 적용시킨 것은 처음부터 가능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한다. cf. Von Rad, Gerhard, *Studies in Deuteronomy* (London : SCM, 1953), p.38.

15)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 p.227.

있다. 즉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 임재에 관한 이스라엘 고대의 전승을 재해석 또는 비신화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고대 계의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성소 임재 관념은 법궤에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법궤는 하나님의 불가시적 임재의 보좌로 이해되었다.¹⁷⁾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성소의 신의 임재에 관한 고대 제의적 관념이 신명기에 의해 비신화화 혹은 합리화(demythologising and rationalising)되었다는 것이다.¹⁸⁾ 왜냐하면 그 거룩한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이다(신 12:21). 말하자면 그의 ‘이름’만이 지상의 성소에 계시고 여호와 자신은 하늘에 계신다(신 26:15).¹⁹⁾ 또한 이런 사상은 법궤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고대 관념을 재해석하여, 그것을 다만 ‘율법’을 보관하는 용기로 보았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신 10:5). 세째, 하나님의 이 요구는 신명기 6:4의 여호와의 유일성과 연결된다. 네째, 제의의 단일화에 대한 주장은 가나안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장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명기 신학을 요약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신명기에는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되고 모여져서 하나님의 통일적이고 신학적인 개요를 이루었다. 한 여호와, 한(포괄적인) 이스라엘, 한 계시(Tora), 한 약속의 땅, 한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한 예언자이다.”²⁰⁾

16) cf. 김 이곤, “오경의 자료총과 그 특성,” 문 회석 편, 「오늘의 오경 연구」(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8), pp.41~44.

17) Von Rad, *Studies in Deuteronomy*, p.39.

18) *Ibid.*, p.40.

19) Von Rad는 이러한 D의 신학화를 ‘Name Theology’라고 불렀다. cf. Von Rad, *Studies in Deuteronomy*, pp.37~44.

20)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 p.229.

Von Rad의 영향을 받은 S. Herrmann은 신명기서가 성경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구약 신학은 신명기서에서 그 중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속에는 구약 신학의 기본 문제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기본 문제는 예배의 순화, 예배의 단일화, 배타적(독점적)인 여호와 예배, 이스라엘의 통일성, 선택과 계약 등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승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이라고 한다.²¹⁾ 여기서 우리는 Von Rad의 영향력의 단면을 보게 된다. 그가 신명기를 중시했다는 것은 다음 말에서도 드러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기원의 출발이다. 따라서 모든 면에 있어서 신명기는 구약의 중심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²²⁾

여기서는 그의 신학의 개관만을 말하고, 특별히 논의해야 할 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3) 신명기 신학의 중심 개념

앞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신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중심점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물론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조직화(Systematization)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이며, 많은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Eichrodt가 그의

21) S.Herrmann, “Die Konstruktive Restauration. Das Deuteronomium als Mitte biblischer Theologie,”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pp.155~170. quoted in G.Hasel, *op. cit.*, pp.95~96.

22) Von Rad, *Studies in Theology*, p.37. 우리는 그가 신명기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또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일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약 신학을 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²³⁾ 히브리 종교의 단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를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구약의 종교적 사고에 있어서 계약의 개념에 중심점이 주어지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구약 메시지의 구조적 통일성이 더 쉽게 찾아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²⁴⁾ 그는 계약을 교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살아 있는 과정의 묘사(description of a living process)로 보았다.²⁵⁾ Eichrodt의 책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구약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계약을 주장하는 효시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그후 계약을 구약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보수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dward J. Young은 구약 신학의 내용으로 계약을 중요하게 다룬다.

“구약 신학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발전적 자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 연구에 관한 것이다. 언약의 방편에 의하여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가 사람과 맺은 것인데 구약 신학이 관설하는 주제이다.”²⁶⁾

Payne은 그의 책에서 계약을 구성 원리로 택하였으며,²⁷⁾ 보수 신학

23)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I*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1) ; 그의 구약 신학은 1935, 1939년에 3권으로 출판되었고, 번역(ET)은 1961과 1967년에 출간되었다.

24) *Ibid.*, p.17.

25) *Ibid.*, p.14.

26) Edward J. Young,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김 전홍 역, 「현대 구약 신학 연구」(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0), p.71.

27) 그는 유언(testament)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의 책에서 받는 인상은 조

계에서는 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R.K.Harrison은 “비록 구약 성경의 신학적 개념들이—Eichrodt가 인정한 것과 같이—특별한 준비를 가지고, 조직화를 시도하는 일을 후원하지는 않는다 해도, 계약 사상이 성경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별 의심이 없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구약의 계약 전승의 계속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경향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성만찬에서 발견될 수 있다(마 26:28; 딱 14:24; 뉴 20:20; 고전 11:25).”²⁸⁾ 또한 Otto J.Baab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탁월한 계약 관계의 관념에서부터 구약 성서 신학의 가치가 생기게 된다.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 이 계약 관념만큼 현저한 면은 없다. 그러므로 이 계약 관념의 빛에 비추어 성서를 탐구해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성서 연구의 방법은 없다. 이 관념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초적 종교 신앙과 그들이 지켜내려 온 신앙과 관련이 되는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²⁹⁾ 또한 “성경은 계약의 역사로서 가장 잘 조망된다.”³⁰⁾ M.G.Kline은 계약과 왕국(the Kingdom of God)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면서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 두 인용문을 보자.

“계약과 왕국은 가까운 개념이다. 계약이란 거룩하신 왕께서 인간에게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의 우주적인 왕국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용된 법적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왕국은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

직 신학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28) R.K.Harrison, *op. cit.*, p.479.

29) Otto J.Baa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 대선 역, 「구약 성서 신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4), p.176.

30) J.Jocz, *op. cit.*, pp.31~32.

나의 왕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은 영원하다. 그 계약은 이러한 통일성과 연속성과 항구성을 공유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선언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없어질 수 없다.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저주를 가져오며, 헌신은 사랑과 복종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된다. ‘하나님 나라의 계약’이라는 개념이 가장 주된 개념이다.”³¹⁾

“구약 경경의 다양한 부분에 이 계약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의 ‘삶의 자리’가 철저하게 여호와의 거룩한 나라의 계약화된 삶(covenantalized life)이기 때문이다.”³²⁾

이런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계약의 연구가 구약 신학의 이해의 관건이 되며, 나아가서는 신구약을 연결시키는 주된 개념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게 된다.³³⁾ 이제 이런 논의를 신명기서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자. 특히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 계약이라는 개념이 더욱 확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신명기가 시내산 계약만을 주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계약의 갱신 문서’라는 사실에서 확실해진다.³⁴⁾ 신명기는 계약 개념에 대한 완전한 해설이기 때문이다. 최근

31) M.G.Kline,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printed material, n.d. p.8.

32) M.G.Kline, “The Correlation of the Concepts of Covenant and Covenant”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ed. J.B.Payne(Waco, Texas : Word Book, 1970), p.270.

33) 신구약의 연관성 문제는 G.Hasel, *op. cit.*, pp.125~127을 참조하라. 거기에 신구약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7가지 관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34)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계약의 갱신(Covenant Renewal)이라는 것은 시내산 계약 이후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키시고 재확인시키신 사건을 의미한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압에서 행해진 계약 갱신을

예 신명기서의 주석을 쓴 보수 신학자 P.C.Craigie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명기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³⁵⁾ 그는 신명기서를 계약 문서로 보고, 계약을 신명기의 틀(frame)로 보려고 한다.

“신명기 신학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는 신명기서가 계약 문서라는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은 신명기 신학의 세부적인 점들이 그 안에서 표현되는 틀을 제공한다.”³⁶⁾

그는 이스라엘 계약의 일반적인 신학적 성격을 검토하고, 신명기서의 중요한 구분을 따라 신명기 신학의 특성을 검토하여 나간다. 그는 계약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주님과 그의 선택한 백성 사이의 결속에 있다고 본다. 또한 계약 결속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을 보여준다.

“계약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하나님이 그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초의 자유로운 원동자였으나, 그 관계는 인간의 응답을 요구한다. 그 관계 안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향하셨고, 그 백성은 사랑으로 그에게 응답해야 한다. 계약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³⁷⁾

다른 문서라는 것이다.

35) P.C.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NICOT) (Grand Rapids : Eerdmans, 1976), pp.36~45.

36) *Ibid.*, p. 36.

37) *Ibid.*, p. 37.

Craigie는 시내산 계약은 단지 역사적 의미만을 가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계속되는 관계(continuing relationship)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계약은 계속 간신히 나갔는데, 그때마다 시내산 사건이 회상되었다. 이런 계약의 간신이란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각 세대가 정규적으로 계약의 주님께 사랑과 복종으로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의 본질은 살아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법적인 묵종(acquiescence)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위탁을 요구하는 것이다.³⁸⁾ 그들은 이제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될 필요가 없었다.³⁹⁾ 이것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성의 특징이다.

이제 필자는 신명기의 핵심 사상을 계약에 두고자 하는 근거로서 계약 간신 문서로서의 신명기에 대해 계속 서술하려고 한다.

4. 계약 간신 문서로서의 신명기

(1) 계약의 의미

1954년 미국의 구약 학자 G. E. Mendenhall은 구약의 계약과 고대 근동 헛 족속의 종주권 조약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밝힌 논문을 발표하였는데¹⁾ 그 아래로 계약 사상은 구약 연구에 있어서 큰 관심의 대상으

38) *Ibid.*

39) *Ibid.* pp. 37~38.

1) G. E. Mendenhall, "Ancient Oriental and Biblical Law," *Biblical Archaeologist* xvii 2(1954, 5) : 26~46; "Covenant Forms in Israelite Tradition," *Biblical Archaeologist* xvii 3(1954, 9) : 49~76; 이 두 논문이 합쳐져서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Pittsburg : The Bib-

로 등장하게 되었다.²⁾ 계약을 나타내는 말 berit는 LXX에서는 diatheke로, Vulgate에서는 testamentum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의 책명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신학적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근년의 고고학적 발굴은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많은 빛을 던져 주었다. 우선 토판 문헌의 발굴을 통해 Mari의 동족어들로 추정되는 말들이 구약 외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B. C. 18세기의 Mari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나귀를 죽인다'는 말이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³⁾ 오늘날 밝혀진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에서 동물을 도살하여 두 부분으로 갈라 놓고 계약 체결 당사자가 그 사이로 걸어가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의미는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계약을 위배하는 편은 도살하여 갈라 놓은 동물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⁴⁾

lical Colloquium, 1955)

2) 이 문제에 관한 참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M. Weinfeld, "berit," TWAT I (1972), pp. 781~801 ; idem, "covenant," *Encyclopedia Judaica* V, pp. 1012 ~1022 ; W. Eichrodt, "Covenant and Law : Thoughts on Recent Discussion," *Interpretation* 20(1966), pp. 302~321 ; D.N.Freedman, "Divine Commitment and Human Obligation. The Covenant Theme," *Interpretation* 18(1964), pp. 419~431 ; G. E. Mendenhall, "Covenant,"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I, pp. 714~723 ; J. Barton Payne, "The Berith of Yahweh,"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pp. 240~264 ; G. Vos, "Covenant or Testament?" in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pp. 400~411 ;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3(1980. 1), pp. 1~57. 3) J. A. Thompson, "Covenant,"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p. 791. 4) *Ibid.*, p. 792.

이와 같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계약을 맺는다’는 말이 ‘Karat berit’(계약을 자른다)로 표현된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Martin Noth는 Akkadian의 birīt(사이, 중간)라는 말이 명사화되어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대신 계약이라는 전문적 용어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히브리어에 전래된 것이라고 한다.⁵⁾ W. F. Albright는 구약의 베리트가 Akkadian의 birītu(fetter, bond)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약을 자른다’는 표현이 B. C. 15세기부터 내려오는 Qatna text에 두 번 나오는데, 한 서판에는 어떤 책임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또 한 서판에는 이와같이 봉사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식량 배급에 관한 이야기가 써어져 있다는 것이다.⁶⁾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 이해에 대한 암시를 준다. L. Köhler는 berit가 본래 ‘음식물’을 뜻한다고 한다. 계약을 자른다는 것은 계약에 수반된 의식적 식사에서 ‘음식물을 자른다’는 뜻으로 식사에 동참함으로 상호 교제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⁷⁾ 히브리어 barah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계약이라는 말은 ‘관계 개념’으로 읽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경에 나타난 계약들은 사람 사이의 계약(창 21:22-34; 31:44, 45; 삼상 18:3; 23:18), 국가 혹은 그 대표자 간의 계약(수 9장; 왕상 15:19;

5) Martin Noth, “Old Testament Covenant-Making in the Light of a Text from Mari,” in his collected essays, *The Laws in the Pentateuch and other Essay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pp. 108f.

6) W. F. Albright, “The Hebrew Expression for ‘Making a Covenant’ in Pre-Israelite Documents,”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21(1951), pp. 21f.

7) Ludwig Köhler, “Th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Language of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Semitic Studies* 1(1956), pp. 6f; idem, *Old Testame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p. 62 참조.

20:34),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창 15:17; 출 19~24장; 삼하 7:4-17) 등이다. 우리는 이런 구분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계약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계약이 다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필자의 관심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계약을 맺으셨고, 또한 그 계약을 개신하였다.⁸⁾ 필자가 관심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에 본고에서는 시내산 계약과 그 개신 문서인 신명기서를 다룰 것이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창 15:17), 다윗(삼하 7:4-17)과 맺으신 계약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사이에는 괄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M. G. Kline은 이 차이를 주목하여 전자를 ‘약속 계약’(promise covenants)이라 부르고, 후자를 ‘법 계약’(law covenant)이라 불렀다.⁹⁾ 법 계약은 성경 외의 자료들과 병행 하므로, 우리는 앞에서 진술한 관심에 따라 이런 형태를 취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중요한 특성을 생각하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종주권 조약 형태가 우리에게 시사해 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결코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 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면은 – 성경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¹⁰⁾ John Murray는 주장하기를 계약은 ‘은혜와 약속의

8) 필자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약이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음을에도 불구하고, 언약(계약)의 내적 통일성을 믿고 있다.

9) cf. M.G.Kline, *By Oath Consigned* (Grand Rapids: Eerdmans, 1968), pp. 13-19; Kline은 비준 의식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선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을 전자로, 백성이 모여 서약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후자로 구분한다.

10) J. Jocz, *The Covenant* (Grand Rapids: Eerdmans, 1968), p. 31, cf. p. 42;

주권적인 행사’¹¹⁾라고 하면서 협약이나 협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처분이라는 의미에서의 분배라는 뜻이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이다. Berkhof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시내산 계약은 행위 계약의 엄격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율법이 일찌기 보지 못했던 탁월성을 가지고 그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시내산 계약은 행위 계약의 개신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율법은 은혜 계약의 보조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다. … 시내산에서 율법적인 요소가 계약에 더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신정국적인 것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그 법을 지키는 데 따라서 주어지는 외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의 죄인을 위한 자기 부과적 의무에 대한 동의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서약을 기초하여,

cf. J. Barton Payne,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 Zondervan, 1962), pp. 80~81, Payne는 신과 사람과의 계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부과적 의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약의 이런 성격은 헛 족속의 종주권 조약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된 결론 중의 하나이다.

11) John Murray, *The Covenant of Grace* (London : Tyndale Press, 1953), p. 31. “a sovereign administration of grace and promise. It is not a ‘compact’ or ‘contract’ or ‘agreement’ that provides the constitutive or governing idea but that of ‘dispensation’ in the sense of disposition.

12) Louis Berkhof, *Systemmatic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41), p. 298.

더 큰 축복의 약속과 미래의 약속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고대 근동의 조약과 계약의 유추¹³⁾

G. E. Mendenhall의 획기적인 저술은 구약에 있는 계약 형식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¹⁴⁾ G. E. Wright는 Mendenhall의 저술 이후로, 이스라엘의 계약적인 삶의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한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자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논문이 금세대의 구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암시적이며 자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¹⁵⁾ Mendenhall의 연구는 B. C. 13~4세기의 헛 족속의 종주권 조약(Suzerainty treaty)¹⁶⁾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구약 성경의 계약 구절들 사이에 있는 유사성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전에 연구된 V. Korošec의 헛 족속의 계약 형식의 분석에¹⁷⁾ 동의하여 다음과

13) cf. J. Robert Vannoy, *Covenant Renewal at Gilgal* (Cherry Hill : Mack Publishing Company, 1978), pp. 132~159.

14) 여기에 많은 양의 저술을 다 기록할 수 없다. D. J. McCarthy, *Old Testament Covenant : A Survey of Current Opinions* (Richmond : John Knox Press, 1972)의 폭넓은 연구와 pp. 90~108의 도서 목록 참고.

15) G. E. Wright, *The Old Testament and Theology* (New York : Harper & Row, 1969), p. 106.

16) 이러한 조약은 헛왕국의 ‘위대한 왕들’(great Kings) 때에 나온 것인데, 그들은 Suppiluliumas I (1380~1346), Mursilis II (1345~1315), Muwatallis (1315~1296), Hattusilis III (1289~1265), Thudhaliyas IV (1265~1235)들이다. (이 연대는 O. R. Gurney의 *The Hittites*, p. 216에서 인용); 조약 원문에 대한 참고서로는 D. D. Luckenbill, “Hittite Treaties and Letters,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37(1921), pp. 161~211 ; J. B. Pritchard(ed), *Ancient Near Eastern Texts*(Princeton, 1955), pp. 201~206.

17) V. Korošec의 책의 원문은 *Hethitische Staatsverträge. Ein Beitrag zu ihrer juristischen Wertung*으로 1931년 Leipzig에서 출판되었다.

같은 여섯 가지의 요소를 언급하였다.¹⁸⁾

(1) 전문(前文), (Preamble) : 종주국 왕은 그의 권위와 힘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소개한다.

(2) 역사적 서언(Historical Prologue) : 종주국 왕은 속국 왕에게 베푼 원조와 그 왕과 맺은 관계를 ‘역사적으로 요약’한다.¹⁹⁾

(3) 규정(Stipulation) : 종주국 왕은 속국 왕에게 계약의 조항을 부과한다.

(4) 신전에 문서를 보관하는 일과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일에 관한 규정(Provision for deposit in the temple and periodic public reading) : 어떤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토판에 새겨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토판은 보통 신전에 보존되는데 그 이유는 계약서를 다시 읽거나 복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5) 중인으로서의 신들의 목록(Lists of gods as witnesses) : 제신을 불러 중인이 되어 달라고 호소한다.

(6) 저주와 축복(Curses and blessing formula) : 계약 조항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이 부여된다. 그리고 계약 조항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기록 형식에 더하여 Mendenhall은 조약 문서의 비준과 관계된 다른 요소를 더하였다.²⁰⁾

18) G. E. Mendenhall,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Pittsburg : The Biblical Colloquium, 1955), pp. 31~34.

19) 계약의 이런 요소는 속국민에게 확신과 감사를 불러 일으키어 계약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e. g., 출 19:4; 20:2b)

20) *Ibid.*, pp. 34~35; K. Baltzer는 1960년에 쓴 *Das Bundesformular*에서 조약의 요소에 대한 Mendenhall과 Korosec의 견해를 다소 수정하였다. ① preamble(전문) ② antecedent history(선행 역사) ③ statement of substance(요지 진술) ④ specific stipulation(상세한 조항) ⑤ invocation of Gods

(7) 속국민이 그의 순종을 서약함(An oath by which the vassal pledged his obedience)

(8) 서약이 동반된 엄숙한 의식(A solemn ceremony accompanying the oath)

(9) 반역하는 속국민에 대한 조치(A form for initiating procedure against a rebellious vassal)

Mendenhall의 연구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여호수아 24장이 이와 같은 요소들의 존재를 보인다는 사실이다.²¹⁾ 조약과 (treaty) 계약(covenant) 사이의 유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여 여기서 다투기가 어렵다. 지난 20여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런 유추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도 그 적용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유추의 타당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²²⁾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인정하면서도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계약을 세우신 기록(출 19~24장)에서는 유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중의 대표적인 이가 D.J. McCarthy이다.²³⁾ Von Rad도 이러한 유추에 확실한 찬성을 보내지

as witnesses(증인 명단) ⑥ blessings and curses(축복과 저주) : 요지 진술은 Grundsatzerklaerung으로 조약 당사자의 미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21) *Ibid.*, pp. 35~44.

22) A. Jepsen, C. F. Whitley, F. Nötscher 등.

23) D. J. McCarthy는 유추의 옹호자 중의 하나이다. 그는 출19~24장에는 단지 근사한 닮음이 있다고 한다(only a remote resemblance). 그의 책 *Treaty and Covenant*, p. 154 ; “세부적인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종교 문헌에 최소한 조약 형태를 사용했다는 증거와 또한 그것을 여호와와의 특별한 관계를 서술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근동의 고대 문헌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만큼 이 사실이 뚜렷한 문서는 없다.” *idem*, *Old Testament Covenant*, p. 14.

않고 있으나, 형식적 유사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하다. 그는 전술한 바와같이 신명기서의 통일성을 제외적인 면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형식을 제외적인 삶에 연결시켜 보려는 듯이 보인다.

“최근에 예기치 않았던 곳으로부터 중요한 자료가 나타났다. 고대 근동의 조약, 특히 14~3세기에 헛 족속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약과 구약 성경의 본문을 비교한 결과 이 두 사이에 형식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종주권 조약과,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과 맷은 여호와의 언약의 상세한 설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구절이나, 구절들의 집단에 대해, ‘계약 형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계약 형식에는 조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식적 요소들이—때때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적용되기는 했으나—반복되어 나타난다. 이 조약의 서식(Schema)은 (1) 전문 (2) 역사적 서언(여기서는 땅의 수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원칙 선언 (4) 특별한 규정들 (5) 증인으로서 신들을 부르는 일 (6) 저주 와 축복 형식(구약에서 연관되는 구절에서 매우 많이 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 형식은—여호수아 24장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이미 포로 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제외적 삶(national cultic life)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우발적 사건에 의해 언약의 기초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언약은 재신되어야 했다(느 9장; 스 9~10장). 동일한 서식이 사무엘상 12장, 여호수아 23장, 역대상 22~24장에서는 공직 위임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미결로 남아 있을지라도 이 두 종류의 자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²⁴⁾

근년에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헛 족속의 조약과 구약의 구절을 비교하여 그 구조적 요소의 유사성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출애굽기 19~24장,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신명기에 관한 것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여호수아 24장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²⁵⁾

〈Kitchen의 분석〉²⁶⁾

1. Preamble 24:2
2. Historical Prologue 24:2~13
3. Stipulation 24:14, 15
4. Deposition of Text cf. 24:26
5. Witness 24:22(백성), cf. 24:27(기념비)
6. Curses and blessings 24:19, 20

〈Kline의 분석〉²⁷⁾

24)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 (New York : Harper & Row, 1962), pp. 132~133. cf. idem, *Deuteronomy : A Commentary*(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6), pp. 21~22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음.

25) J. A. Thompson의 것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음. *The Ancient Near Eastern Treaties and the Old Testament* (London : 1964), pp. 20~23. 그의 1974년도 주석(신명기)을 보면 계약 구성 요소에서 수정을 보인 것이 있다. 즉 Preamble을 구약 계약 형식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의 여호수아 24장 분석은 (1964) ① Preamble 24:2a ② Historical Prologue 24:2b~13 ③ Statement of Substance 24:12 ④ Stipulations 24:25 ⑤ Witnesses 24:22, 27.

26) K. 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Doubleday : IVP, 1966), pp. 96~98.

27) M. G. Kline,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printed material, n. d., p. 7.

1. Preamble 24 : 2a
2. Historical Prologue 24 : 2b – 13
3. Stipulation 24 : 14 (cf. v.23)
4. The Ceremony 24 : 15 – 25
5. The Document Deposited 24 : 26a
6. Witnesses to the Covenant 24 : 26b – 27

이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나, 종합적으로 이들의 분석을 검토할 때, 여호수아 24장의 놀라운 조약 형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계약 부분을 검토해 보자. Kitchen은 출애굽기 20~31장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²⁸⁾

1. Preamble 20 : 1
2. Historical Prologue 20 : 2
3. Stipulations 20 : 3 – 17, 22 – 26(기본 조항)
21 : 23, 25 : 31(세부 조항)
4. Deposition of Text 25 : 16, 34 : 1, 28, 29, cf. 신 10 : 1 – 5
5. Witness 24 : 4(기억의 돌)
6. Curses and Blessings cf. 태 26 : 3 – 13(축복), 14 – 20(저주), 21 – 33(불순종의 반복)
7. 8 Oath and Solemn Ceremony 24 : 1 – 11

Thompson도 유사한 연구로 출애굽기 19~20장을 분석하였다.²⁹⁾ Kline은 그의 책에서 시내산 계약을 분석해 나간다.³⁰⁾

28) K. A. Kitchen, *loc. cit.*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출애굽기 20~24장으로 국한시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29) J. A. Thompson, *loc. cit.* ① Preamble 19 : 3, 20 : 2a ② Historical Prologue 19 : 4, 20 : 2b ③ Statement of Substance 19 : 5a, 20 : 3 ④ Stipulation 20 : 4 – 17 ⑤ Curses and Blessings 19 : 5b, 6a ; 20 : 5b, 6, 7b, 12b.

30) M. 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 Eerdmans, 1963),

1. Preamble 20 : 2a
2. Historical Prologue 20 : 2b
3. Stipulations 20 : 3 – 17
4. Deposition 두 돌판(25 : 16, 21 ; 40 : 20; 신 10 : 2),³¹⁾ 정기적 낭독(cf. 24 : 7 ; 출 25 : 10 – 22)
5. Witness 20 : 7³²⁾
6. Curse and Blessings 25 : 5, 6, 7, 11, 12(펴져 있음)

필자는 이들의 이러한 노력에 동의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시내산 계약의 성립과 영구화(갱신)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헷 족속의 조약 형식과 유사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기록·연대문제와 관련하여 조약 형태를 연구한 보수 신학자들의 노력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Kitchen은 13~4세기의(second-millennium) 조약 형태와 주전 첫 천년대의(first-millennium) 계약 형태를 비교 요약하면서 시내산 계약과 그 병행 구절들이 13~4세기의 조약 형태와 평행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³³⁾ 이것은 신명기서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고대성을

pp. 14~26.

31) 두 돌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윗 책, pp. 16~19에 자세히 되어 있음. 그는 여기서 ‘십계명’이라는 명칭에 약간의 회의를 표한다. 그것은 계약의 진실성을 아둡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돌판은 ‘계약의 판’(신 9 : 9, 11, 15)이며 ‘증거의 판’(출 31 : 18 ; 32 : 15 ; 34 : 29)이다.

32) 종인으로 신을 부른 것은 볼 수 없으나 제3계명에서 함축적인 것을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서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20 : 7은 보인다. 또한 Mendenhall은 시내산 계약에서 서약의 언급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언어 형식보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찾으려 했다. cf. G. E. Mendenhall, *Biblical Archaeologist* vii 3(1954), p. 66.

33) K. A. Kitchen, *op. cit.*, pp. 95 – 96. 그가 말하는 차이점 4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13~4세기 조약은 신적 증거가 규정과 저주 사이에 나오나, 첫 천년간의 조약은 그렇지 않다. ② 13~4세기 조약에는 역사적 서언이 전형적인

입증하는 한 증거가 되며, 신명기서를 B.C. 7세기의 산물로 보는 일에 타격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대하는 비평학자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는 이 조약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조약-계약의 유추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형식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후대의 일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³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말씀을 파괴하는 비평가들의 주장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여기서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3) 신명기에 대한 적용 문제

Mendenhall의 연구는 더욱 확충되어 성경의 여러 곳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신명기서에 적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³⁵⁾ 그리고 Mendenhall의 논문은 문학적, 주석적, 신학적인 적용의 가능성성이 크

데 비해, 첫 천 년간의 조약은 그렇지 않다. ③ 13~4세기 조약은 축복과 저주가 조화를 이루며 짹이 되어 나타나는데, 첫 천 년간은 그렇지 않다. ④ 13~4세기 조약의 요소들은 그 순서에 있어서 대단한 일치성을 볼 수 있으나, 첫 천 년간의 조약은 다양한 순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J. Robert Vannoy, *op. cit.*, pp. 151~156 참조.

34) 신명기의 기록 시기와 관련된 계약 형식에 대한 논쟁은 Vannoy의 책 부록 (192~196)을 참조하라. Vannoy는 J. C. Plastras, R. Franken, Von Rad, E. W. Nicholson, M. Weinfeld, M. G. Kline, Kitchen 등의 논의를 잘 설명해 준다; P. C. Craigie는 신명기 주석 pp. 26~29에서 Weinfeld와 Franken의 견해를 다룬다.

35) cf. “Mendenhall을 비롯한 비판학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자료를 신명기의 계약에 적용하기를 주저하였다.” K. A. Kitchen, “Ancient Orient ‘Deuteronomism’ and the Old Testament,” in *New Perspectives of the Old Testament*, ed. J. B. Payne (Waco, Texas: Word Books, 1970), p. 3

며, 미래에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서에서 조약 형식을 찾는 것은 신명기의 고대성과 구조적 통일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명기 신학의 중심점을 찾는 일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신명기 연구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인 것이다.³⁶⁾ 그러면 먼저 신명기를 조약 형식으로 분석한 Kitchen의 견해를 살펴보자.³⁷⁾

1. Preamble (1 : 1~5)
2. Historical Prologue (1 : 6~3 : 29)
with attached exhortation (4 : 1~40, 44~49)
3. Stipulations : a) basic (5~11)
b) detailed (12~26)
4. a) Deposition (31 : 9, 24~29)
b) Reading (31 : 10~13)
5. Witnesses (31 : 14~23, 30 ; 32 : 1~47 ; 31 : 26)
6. Blessings and Curses 28 : 1~14 (blessings)
28 : 15~64 (curses)
with summarizing exhortation attached (29~30)

36) M. G. Kline, *op. cit.*, p. 47. 이러한 접근 방법은 Von Rad가 신명기의 전체적인 형식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도와 한편 통하는 점이 있는 하나, 신명기의 고대성, 신명기의 형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접근은 비평적 견해를 강타하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M. G. Kline도 Von Rad의 접근 방법을 언급하면서, 그의 ‘제의적 축제의 형식’이라는 점과 ‘국제 조약에 대한 연구’는 어느정도 접근하는 면이 있으나, ‘국제 조약에 대한 연구의 빛 아래서 우리는 Von Rad의 연구보다 더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신명기서의 문학적 장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책 pp. 29~30.

37) 그가 1966년에 쓴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pp. 95~96과 1970년 Payne이 편집한 책에 기고한 “Ancient Orient ‘Deuteronomism’ and the Old Testament,” p. 4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뒤의 것(수정된 것인 듯)이다.

(7). 8. (Oath &) Solemn Ceremony 27

(9. Formal procedure : rîb³⁸⁾ 32)

Kitchen은 이런 분석을 통하여 신명기와 13~4세기의 조약 사이에 명백한 조화의 증거가 있음을 보고, 이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³⁹⁾

Kline은 Kitchen의 분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신명기의 순서와 연결지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⁴⁰⁾

1. Preamble 1:1~5

2. Historical Prologue 1:6~4:49⁴¹⁾

3. Stipulation 5~26

4. Curses and Blessings 27~30⁴²⁾

5. Succession Arrangement or Covenant Continuity 31~34

Kline은 신명기가 연설체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모세의 말은 의식적인 말(ceremonial words)로 인정되어야 하며, 모세가 자유롭게 마지막 연설을 하였다는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³⁾ 또한 그는 Von Rad의 견해에 대한 비평과 M. Noth의 견해에 대한

38) 이것은 반역하는 속국민에 대한 조처를 의미한다.

39) K. A. Kitchen, "Ancient Orient 'Deuteronomism'...", p.4.

40) M. G. Kline, *op. cit.*, pp. 48~49. 이외에도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NICOT), p. 24와 Thompson, *Deuteronomy*, pp. 14~21. Craigie의 분석은 다른 사람과 유사하나, Thompson은 Preamble과 Witness를 제외하였고 Recapitulation을 침가시켰다.

41) 신명기 4장은 조약 형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 연구의 출발이 되었다. ① 말하는 자(speaker) 1,2,5,10 ② 계약 역사 10ff, 20ff 등 ③ 기본 규정 15ff 등, ④ 저주와 축복 27ff, ⑤ 증언의 기원 26, ⑥ 계약의 영구화를 위한 조처 9,10,21,22, M. G. Kline,*op. cit.*, p. 31.

42) 이 부분 역시 4장과 같이 조약의 요소가 들어 있다. ① 결단을 위한 부록(30: 15~20) ② 역사적 전술(29: 2ff) ③ 기본 조항(29: 18ff) ④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름(30: 19) ⑤ 축복과 저주(27~30 도처에), *Ibid.*, p. 34.

43) *Ibid.*, p. 29.

비평을 결론인다.⁴⁴⁾

Kline은 특히 31~34장의 분석에서 하늘과 땅이 거듭 증인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과(31: 28; 32: 1, cf. 4: 26; 30: 19) 증언의 노래(32: 16~22; 32: 28~32, 45)에서 Witness의 요소를 본다. 특히 이 노래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으로 불러 증거가 되도록 한 것이다.(31: 19). 또한 조약의 본문을 성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재선포하도록 조처를 취한 것(31: 9~13)은 계약의 영구화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31: 12, 13; 32: 46).⁴⁵⁾ 특히 여호와의 계속되는 주 되심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의식에서 확인된다(31: 3).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조적 계승과⁴⁶⁾ 관련되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서약해야 했다(cf. 34: 9; 수 1: 16~18).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계승은 여호와의 계속되는 주 되심을 가장 특출하게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계약 의식과 문서에서 기본적이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⁴⁷⁾ 그러므로 31~34장은 신명기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신명기 전체를 위한 근거가 된다.

Kline은 이런 분석을 기초로 신명기서는 모세 시대의 종주권 조약의 양식을 보이는 구조를 가진 계약 간신 문서라는 것을 주장한다.⁴⁸⁾

Kline은 종주권 조약 형태의 분별할 만한 진화(discernible evolution), 즉 14~3세기의 조약 형태는 7~8세기의 조약 형태와 다르다는 것을

44) M. Noth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서론으로 1~4을 신명기에서 분리시킨다. 즉 그는 신명기서에 독립적인 두 서론이 있다는 것이다.(1~4 / 5~11) 이것은 조약의 Preamble과, 역사적 서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결될 수 있다.

45) M. G. Kline, *op. cit.*, p. 35.

46) 종주권 조약에서는 왕의 가문의 계승을 중시한다. 사실상 속국민은 그 총성의 서약을 종주와 그 계승자에게 동시에 하는 것이다.

47) *Ibid.*, p. 37.

48) *Ibid.*, p. 28.

근거로 신명기의 기원을 모세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⁴⁹⁾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우리는 신명기서의 고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보게 된다. O. Eissfeldt는 Kline의 왕조적 계약을 비판하여 이것은 모든 역사적이며 비판적인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⁰⁾ 또한 어떤 이는 조약 형식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 McCarthy는 둘 사이에 형식상 차이가 없다고 말함으로 신명기 를 요시야의 침대에서 안전하게 잠자도록 해 주고 있다고 Payne은 말 한다.⁵¹⁾ 우리는 비판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역설하는 그들의 열의 그리고 그들의 과학적 연구가 오늘날 신명기 연구에 끼친 공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⁵²⁾

그러므로 헷족속의 종주권 조약에 대한 연구는 신명기의 고대성, 계약의 성격, 나아가서는 신명기 신학이 다루고 있는 중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필자는 신명기의 핵심 사상을 계약에 두고,⁵³⁾ 그와 관련된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를 논술하기로 하겠다.

5. 신명기 신학의 계약적 구조¹⁾

49) *Ibid.*, p. 42. 앞절을 참고하라.

50) Ott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 An Introduction* (New York : Harper & Row, 1965), p. 176.

51) J. B. Payne, *op. cit.*, p. 245.

52) 윤영탁, *op. cit.*, p. 27.

53) III, C 참조, 최근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 신명기서 신학의 틀을 계약으로 보려는 이들이 많다. M. G. Kline, P. C. Craigie 등.

1) M. G. Kline은 그의 저서 *Treaty of the Great King*의 부제를 “The Covenant

(1)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가 보여주는 계약의 하나님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해 먼저 신명기서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경 비평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Elohim과 Yahweh는 다른 편집자에 의해서 사용된 동등한 명칭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²⁾ Elohim은 보통 명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 신들에게 함께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강하고 능력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하나님을 의미하며, Yahweh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서 사용되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계약적 성실성을 강조하는 그의 고유한 이름이다 (출 15:3; 시 80:19[MT]; 사 42:8),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³⁾ Manley는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분석 검토함으로,⁴⁾ 여러가지 비평적 견해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신명기의 모세 저작설을 주장하였다.⁵⁾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신명기에 나타난 신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번도로 나타난다.⁶⁾ El: 12회,

Structure of Deuteronomy”라고 불렸다.

2) cf. O. T. Allis, *The Five Books of Moses*, pp. 23~29. 배재민 편역, 「반문서설」(서울: 기독교문사, 1978), pp. 23~58.

3) L. Berkhof, *op. cit.*, p. 49. []안은 필자의 것임.

4) LXX와 MT의 차이는 별로 없다. Elohim은 Theos로, Yahweh는 Kyrios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드물게 Yahweh가 Theos로 번역되었다. (예, 2:15; 8:3; 12:21; 26:17; 29:20)

5) G. T. Manley, *op. cit.*, pp. 37~47.

6) *Ibid.*, p. 37. 이 책의 도표 중 “Yahweh the God of your fathers”는 잘못되어 있으므로 8회로 고쳐야 한다. cf. p. 43. 또 p. 44의 4:21은 4:1로 수정되어야 한다.

Eloah : 2회(32:15,17), Elyon : 1회(32:8), Elohim(gods) : 37회, Elohim(God)alone : 24회, Yahweh(alone) : 235회, Adonay Yahweh : 2회(3:24; 9:26), Yahweh the God of(your, etc.) fathers⁷⁾ 8회 (1:11,21; 4:1; 6:3; 12:1; 26:7; 27:3; 29:25), Yahweh thy (your, etc.) God : 299회. 이와같은 분석에서 볼 때, Yahweh가 Elohim보다 10배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웨라는 명칭은 십계명 서두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⁸⁾ 라는 말에서 보는 바와같이 호렙산에서의 계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이다.⁹⁾ 신명기에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이와같이 강조되어 사용된 것은 대단히 의미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 주는 데 299회나 사용되었다. 특히 이 표현을 윤법을 서술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120회 사용된 데 비하여 Elohim이 단독으로 사용된 곳은 2회에 불과하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인격적이며 독점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심을 거듭 말하고 있다(4:13,23,31; 5:2,3; 9:9; 29:1,12). 그리고 그는 이 계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 신명기서는 여러 곳에서 ‘계약의 진실

7) 이 문구는 모세의 소명 기사에 나타난다(출 3:13,15,16; cf. 15:2; 18:4). 그리고 신명기와 출애굽기 외에 3번 나타난다(삿 2:12; 왕하 21:22; 스 10:11). 이것은 신명기의 고대성을 증거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8) 출 2:2, 신 5:6

9) G. T. Manley, *op. cit.*, p. 39.

10) *Ibid.*, pp. 41~42.

성’과 그의 ‘지속적 성실’을 보여준다.(5:10; 7:9,12; 8:18)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7:9)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사도다”(32:4). 그는 아버지의 신실성을 가지시며(1:31; 32:6), 변치않는 반석이 되신다. (32:15,18,30,31)

신명기서는 특히 계약의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4:35; cf. 4:3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10:17).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질투하시면서 모든 사랑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4:24; 5:9; 6:15; cf. 32:16,21).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인 이와 같은 신으로 나타난 것은 철학의 사색에 의해 도달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상식적 해석에서 온 것이다.¹¹⁾ (4:32,33,34,38)

신명기 6:4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독특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다. “Yahweh Elohe[nu] Yahweh ehad”이 구절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많은 번역들이 LXX와 Vulgate를 따라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로 번역되어 있다.¹²⁾ 그러나 이 문장은 RSV와 NIV가 각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

11) Lester J. Kuyper, “The Book of Deuteronomy,” *Interpretation* Vol. 3, Book3(1952), p. 327.

12) AV, ASV, RSV, NIV 등.

이 다음 몇 가지로도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¹³⁾ ①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②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③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alone. ④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이 중에서 chad를 ‘alone’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¹⁴⁾ ‘alone’에 해당되는 단어 lebadeka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왕하 19:15; 시 86:10) 이런 의미로 chad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alone’이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¹⁵⁾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통일성(unity)과 유일성(uniqueness)을 함께 보는 것이다.¹⁶⁾ 이 구절은 특히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유일신 하나님(monotheism) 사상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예배를 원하신다. 이런 사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연결되어지며, 이 사상은 후에 논할 성소의 단일성 사상과도 연결된다.¹⁷⁾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 신학의 주제로 ‘한 분이신 하나님’ 사상을 중시하고 있다.¹⁸⁾

13) RSV는 ① ② ③, NIV는 ② ③ ④를 제안하고 있다.

14) cf. Keil and Delitzsch, *The Pentateuch*, p. 322; S. R. Driver, *Deuteronomy*, p. 90.

15) P. C. Craigie, J. A. Thompson, Von Rad 등.

16)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Grand Rapids: Eerdmans, 1976), p. 169.

17) 비평가들은 이 사상으로 신명기를 요시야 왕의 개혁과 연결시키나, 보수주의 학자들은 미래의 성전과 연결시키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유일성에서 찾고 있다. “The oneness of the sanctuary corresponded to the oneness of the divine lordship over Israel” M. 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p. 80, “a central place of worship would help Israel to understand that the Lord their God was one Lord” C. K. Lehman, *Biblical Theology-Old Testament*, p. 184.

18) R. K. Harrison은 신명기의 주제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백성, 그리고

또한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준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5:26), 능력이 있는 하나님(7:19; 10:14), 영적 존재이시고(4:12, 15),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4:7)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4:37, 10:15)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고로 애굽에서 선조들을 구하여 주셨으며(4:37, 10:15), 그는 사랑하시므로 그 맹세를 지키시고(7:8),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그들에게 변성함을 주신다(7:13; cf. 23:5). 그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며(7:7-8),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다. (cf. 5:10)

특히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내신 사실에서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선택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술 중의 하나는 신명기 7:6-15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더우기 그는 그 계약을 충실히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서 지키고 계시다. 선택과 계약의 주제들을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계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순종, 그리고 봉사에로 선택받았음이 분명해 진다.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히 우리를 다음 주제로 인도하여 준다.

(2)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일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p. 935.

신명기 신학의 계약적 구조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다.¹⁹⁾ 신명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이 특유성을 선택의 사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²⁰⁾ 신명기의 이런 사상을 잘 표현한 곳은 7:6~8이다. 이 구절은 무엇이 이런 선택을 가능케 하였는가를 설명하여 준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도 아니며, 그들의 힘도, 그들의 수효도 아니다(7:7).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는 곧 사랑인데, 이 사랑 때문에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다(7:8; 4:37; 10:15). Von Rad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선택 신학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강조를 하나, 이 선택 사상을 신명기서의 창작이라고 보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²¹⁾ Von Rad는 그의 구약 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비록 높은 하늘과 모든 땅을 소유한 여호와이시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향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셨다(신 6:10; 7:8; 10:14f). 모든 민족 중 그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러한 선택의 사상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신명기서의 창작인데, 매우

19) Manley가 분석한 대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신명기서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cf. H. H. Rowley,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London: Lutterworth, 1950); Th. C. Vriezen, *Die Erwählung Israels nach dem Alten Testament* (Zürich: Zwingli-Verlag, 1953) 여기서는 신명기에 나타난 선민 사상을 다루고 있음.

21) Walther Zimmerli도 고유한 선택 신학이 처음 나타난 것이 신명기 시대라고 말한다. 그의 책,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김 정준 역, 「구약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p. 53.

철저하게 여러 번 표현되었다. 즉 이스라엘은 당당한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들 중에서 작다. 그 선택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사랑이다(신 7:7~9). 이제, 여호와의 계약과 여호와의 사랑이 결합되어 동의어와 같이 쓰게 된 것은 폭넓고도 급진적인 표현을 주었다는 점에서 역시 새로운 것이다.”²²⁾

신명기서는 선택된 이스라엘을 가리켜 몇 가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처음으로 ‘성민’(Holy people)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7:6; 14:2, 21; 26:19; 28:9). 거룩하다는 말 qadosh는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 속에는 선택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가 함께 들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7:6, 14:2, 26:18에서 사용되었다.²³⁾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am-segulah인데, ‘특별한 보화’(Thompson) 혹은 ‘소중히 여겨 진다’(Craigie)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 땅의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하나님에 소중히 여기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기업의 백성’(am-nahalah) 혹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기업’(amka nahalateka)이라는 말이 4:20, 9:26, 29에서 사용되었으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1:8과 26:15에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된 백성이며, 그 선택이 계약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

22)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 p. 223.

23) 7:6은 ‘자기 기업의 백성’, 14:2은 ‘자기의 기업의 백성’, 26:18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번역되어 있다(개역). NIV는 ‘treasured possession’, RSV는 ‘his own possession’, KJV는 7:6을 ‘a special people’로 14:2과 26:18은 ‘his peculiar people’로 번역되어 다양성을 보인다.

았다. 또한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여호와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의무 사상도 강한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선택된 이스라엘은 항상 특권만 누리는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서 복종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²⁴⁾ 이 주제는 계약 백성의 삶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의 단일성(Unity)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한다.²⁵⁾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이런 사상을 암시해 준다.²⁶⁾ 이 사상은 5:3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라는 사상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약의 공동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끝으로 덧붙여 두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이미 앞에서도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 문제를 잠깐 언급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개념에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참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벧전 2:9; 딛 2:14; 엡 1:14), 변치 않으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²⁷⁾

24) Walther Zimmerli, *op. cit.*, p. 56.

25) 1:1, 5:1, 11:6, 13:11, 21:21, 27:9, 29:2, 31:1, 7, 11, 32:45, 34:12 등.

26) 13:12-16, 3:18ff, 1:23 등.

27) cf. L. J. Kuyper, *op. cit.*, pp. 321-339, 이 논문에서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어 가면서도 요소 요소에서 신약적 해석을 덧붙여 가고 있는 점이다.

(3) 계약의 근거

고대 근동 조약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역사적 서언이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지나간 날의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를 서술하는 것인데, 지나간 날 종주국이 속국에 대해서 베푼 사랑과 자비를 서술함으로서 이에 대한 감사를 후손들에게 영구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되어진 것이다.²⁸⁾ 속국은 과거에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미래의 성실한 순종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신명기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특한 역사적 서언을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구원의 행위가 모든 계약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절대자이신 것을 체험하였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내산 계약은 출애굽의 논리적 결과인 것이다. 분명히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의 은혜로운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십계명 서론이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준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5:6)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나와 너’의 인격 관계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맺어진 계약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출애굽 사건—상기시키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수립하시기에 앞서, 과거에 그가 이스라엘을 향

28) G. E. Mendenhall,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p. 32.

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시내산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신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²⁹⁾

신명기서는 계속하여 출애굽 사건을 강조한다.³⁰⁾(1: 27, 30; 4: 20, 34, 37, 45; 5: 6, 15; 16: 12, 21, 23; 7: 8, 19; 8: 14; 9: 12, 26; 13: 10; 15: 15; 16: 1, 3; 24: 18, 22; 26: 8; 29: 2 등) 그리고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혹은 역으로 ‘잊지 말라’는 말도 많이 사용된다.³¹⁾ 이것은 신명기서의 특징적인 표현인데, 인간이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6: 10 – 13; 8: 11, 14, 19; 9: 7).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에서의 삶과 출애굽, 광야의 경험과, 여호와 자신 등이다.³²⁾(16: 12; 24: 22; 5: 15; 6: 12; 7: 18, 19; 8: 14; 15: 15; 16: 3; 24: 18; 4: 9 – 13, 23; 4: 39, 40; 6: 6; 8: 11, 14, 18, 19; 11: 18; 26: 13; 8: 2, 14 – 16; 9: 7; 24: 9 등). 오늘의 행동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기억’이

29) 박 준서, “구약 계약 신학의 연구”, 문희석 편, 「오늘의 오경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184.

30) 이 구절 중 흥미로운 구절은 5: 15인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차이가 나는 곳이다. 출애굽기 사건에 대한 강조를 여기서 보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종주권 조약에서는 계약 갱신의 과정에서 이런 변경을 하는 일이 흔하다. M. G. Kline, *op. cit.*, p. 33.

31) 이외에 신명기서는 ‘보라’는 말을 72회나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주목하여 보라는 의미일 것이다. cf. Jacob M. Myers, “The Requisites for Response”, *Interpretation* XV(1961. Jan), p. 17.

32) E. P. Blair, “An appeal to Remembrance”, *Interpretation* 15(1961. Jan), p. 45. cf. James Cogswell, “Lest we Forget”, *Interpretation* 15(1961. Jan), pp. 32~33. 이 사람은 기억의 대상을 Egypt, Horeb, wilderness라고 한다.

라는 말은 신명기서의 강한 주제가 된다.³³⁾ 이러한 기억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7: 17ff) ②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함(8: 2ff, 11ff; 9: 6ff) ③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함(4: 9 – 24; 6: 12 – 15) ④ 계명의 순종(5: 6) ⑤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함으로 가난한 자, 나그네, 종에게 관용을 베풀(5: 14, 15; 15: 12 – 15; 16: 9 – 12; 24: 17 – 22; 10: 19) 등이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며, 그의 법을 지키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러한 거룩한 기억들의 보고(寶庫)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목적 의식의 영원한 근원이기 때문이다.”³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의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

(4) 계약 백성의 삶

신명기서는 계약 백성의 삶에 대한 권위 있는 표준을 지닌 책이다.³⁵⁾

33) E. P. Blair, *op. cit.*, p. 43. Irving L. Jensen은 그의 책에서 신명기서를 ‘기억의 책’이라고 불렀다(*Book of Remembrance*). *Jensen's Survey of the Old Testament*(Chicago: Moody Press, 1978.).

34) James, Cogswell, *op. cit.*, p. 33.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백성의 삶은 충성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보답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새로운 백성의 정신을 확립시키는 책이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태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스러운 성격을, 민수기는 그 공동체의 정신—그것은 바로 사랑의 정신이어야 한다—을 기술하고 있다.”³⁵⁾

“모세는 그 동포들이 우유부단함을 절 안다. 게다가 동족들이 바야흐로 들어가려는 땅에서 그들이 새로운 유혹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이제, 광야의 단조로운 생활도 끝난다. 그들이 침입하려는 도시들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부유와 사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으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며,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이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적 신앙을 가질 것을 넘치는 애정으로 간곡히 타이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영광스러운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것은 오직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보답을 함으로써만 얻어질 것이다.”³⁶⁾

35) Edward P. Blair, *The Book of Deuteronomy and the Book of Joshua*. 유석종 역, 「신명기·여호수아」(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6), p. 10.

36) Peter F. Ellis, *The Pentateuchal History*, 김윤주 역, 「모세 오경」(분도출판사, 1979), p. 81.

37) *Ibid.*, pp. 82~83.

38) 이 율법의 책(28:61; 29:21; 30:10; 31:26) 이 율법(1:5; 4:8; 17:18,

신명기서에서 가르치는 백성의 삶의 표준은 ‘토라’이다.³⁹⁾ 이 말은 규례, 법도, 명령, 증거 등의 말로도 사용되고 혹은 복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 용어는 광범위한 뜻을 가지는데 곧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신명기는 법률적인 책이기 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설명서라고 볼이 마땅할 것이다.⁴⁰⁾ 신명기의 율법은 인간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계약으로 하나님과 묶여진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다.⁴¹⁾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계약의 법은 무슨 짐이나, 혹은 인간의 공로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것이다.⁴²⁾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심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 즉 삶에 대한 교훈의 총체가 곧 ‘토라’인 것이다.

신명기 10:12에는 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네 개의 동사가 함께 나온다. ‘fear’⁴³⁾, ‘walk’⁴⁴⁾, ‘love’⁴⁵⁾, ‘serve’⁴⁶⁾라는 네 동사는 계약 백성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용어들이다.

이제 계약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해 생각하기로 하겠다. De Wette의 추종자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예배 처소의 중앙화라고 주장한다. 이

19; 27:3, 8, 26).

39) J. A. Thompson, *Deuteronomy*(Leicester: IVP, 1974), p. 12.

40) *Ibid.*, p. 13.

41) *Ibid.*

42) 4:10, 5:29, 6:2, 13, 24, 8:6, 10:12, 20, 13:4, 11, 14:23, 17:13, 19, 19:20, 28:58, 67, 31:12, 21:21, 25:18 등.

43) 5:33, 8:6, 10:12, 11:22, 19:9, 26:17, 28:9, 30:16 등.

44) 6:5, 7:9, 10:12, 11:1, 13, 22, 13:3 등.

45) 6:13, 10:12, 20, 11:13, 13:4, 28:47 등.

중앙화가 요시야 왕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고 하면서 신명기의 연대를 7세기로 보았다. 그때까지는 여러 다른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법적이었으나, 예배 처소의 중앙화가 그때에 비로소 실시되었다는 것이다.⁴⁶⁾ 그들은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출애굽기 20:24과 신명기 12:5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20:24의 말씀은 예배 처소의 다수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은 예배 처소(sanctuary)를 말하는게 아니라, 제단(alter)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제단이 예배 처소의 다수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판학자들이 주장하는 무제한의 다수와는 거리가 멀다. 결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특정한 거룩한 장소를 말한다.⁴⁷⁾ 또 한 신명기 12:5의 ‘곳’(hamaqom)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를 말하며 그 처소가 어디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판학자들이 그 처소를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⁴⁸⁾ 본문을 충실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판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명기 12:5 말씀을 2절과 비교해 보면, 5절의 ‘곳’은 2절의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하실 곳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유동함에 따라 예배 처소가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신명기 12:10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

46) O. T. Allis, *The Five Books of Moses*(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3), pp. 178~179.

47) *Ibid.*, p. 179. 족장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제단을 쌓는 습관이 있었다.

48) G. T. Manley, “Deuteronomy”, *New Bible Dictionary*(IVP, 1974), p. 308, Von Rad도 예루살렘설을 부인한다.

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라고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 처소가 미래에 되어질 것임을 말해준다. 이 말씀은 드디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서 성취되었다. 특히 열왕기상 8:12 이하에 수차 반복되는 ‘이름’ ‘이름을 두다’ ‘곳’ 그리고 ‘택하다’ 등은 모두 신명기 12장에서 유래된 것이다.⁴⁹⁾ 이 말씀의 성취가 솔로몬 이전에 이루어 질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또 계속된 불순종으로 이렇게 지연되었다고 Allis는 생각한다.⁵⁰⁾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20:24이 예배 처소의 중앙화를 모르고 무분별한 예배 처소의 다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 신명기 12:5이 다른 제단에서 예배를 허용치 않고 다만 예배 처소의 예루살렘 중앙화를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예배 처소 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에 따라 제단을 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5은 출애굽기 20:23, 24의 설명이며 강한 강조인 것이다. 신명기가 미래의 예배 처소의 중앙화를 암시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⁵¹⁾ Oestreicher나 Welch에 의해 예배 처소의 중앙화가 비판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비평적 견해에 머무르고 있다.⁵²⁾

이와같이 신명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명이 밝혀진 일이 없고,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우상 숭배의 타파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볼 때⁵³⁾ 중앙 성소화에 대한 비평적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에

49) O. T. Allis, *op. cit.*, p. 181.

50) *Ibid.*, p. 179

51) M. G. Kline, *op. cit.*, p. 80. “The oneness of the sanctuary corresponded to the oneness of the divine lordship over Israel.”

52) J. A. Thompson, *op. cit.*, p. 54

대해 Manley와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앙화의 이론은 단지 역사를 잘못 읽은 것에 의해서 지지되었으며, 본문을 인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⁵⁴⁾

“신명기 12장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한 장소의 율법, 이 법은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신 곳에서만 제단을 세워야 한다는 출애굽기 20:21 [24]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기억해야 할 일은 신명기 어느 곳에서도 예루살렘에 유일한 합법적인 성소라고 명시된 곳은 없다. 신명기 안에 있는 이 율법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목표했다는 생각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 놓은 것은 성소의 중앙화가 아니라 우상의 철폐였다는 것에 주의 하여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신명기가 주전 7세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12:10 이하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소가 세워질 것이나, 즉시 세워지지 않으며, 주께서 백성의 원수를 제하시고 안식을 주신 후에라야 세울 것이라는 것이다.”⁵⁵⁾

신명기 12장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핵심은 가나안의 의식을 따르지 말며, 오직 한 하나님께만 순수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예배의 동기는 내적인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53) M. G. Kline, *op. cit.*, p. 82. “The accent thus falls more heavily on the purity than the unity of the cultus.”

54) G. T. Manley, *The Book of the Law*, p. 135.

55) Edward 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1953), pp. 99~100.

서의 교훈이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결정지어 준다.⁵⁶⁾

“인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어긋나는 것 같지만, 실상 신명기 설교는 이것을 다양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철저한 인도주의 곧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으로서의 위치와 사명,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함에 관심하고 있다.”⁵⁷⁾

신명기서에는 사회 안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런 소외당한 인간을 위한 자유와 소유의 균등을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고 있다. 가령 과부, 나그네, 고아 등에 대한 규약이나 (14: 28, 29; 16: 11, 14; 27: 17~26; 26: 12, 13) 징병 제도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것(20: 5~9; 24: 5), 전쟁에서 포로된 여자에 대한 취급 문제(20: 10~14), 체불 노임 금지(24: 15),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4: 41~49; 19: 1f), 면제의 법(5: 1~11) 등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나타낸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다.⁵⁸⁾

끝으로 계약 백성의 삶과 연관하여 신명기서가 반복하는 ‘오늘’이

56) Samuel J. Schultz, *The Gospel of Moses*(New York : Harper & Row, 1974), p. 60.

57) 김 정준, 「구약 신학의 이해」(서울 :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4), p. 246.

58) cf. M. Weinfeld, “The Origin of Humanism in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X*(1961), pp. 241~245.

라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다. 신명기서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약 70회 정도 나타난다.⁵⁹⁾ 이것은 신명기가 ‘오늘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비평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모세의 시대와 이 책을 읽는 시대(요시야 시대) 사이의 간격을 추론하나, 그렇게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⁶⁰⁾ 신명기가 말하는 ‘오늘’은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오늘’인 것이다. 이 말은 지나간 날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서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명기서의 독특한 신학적 주제인 것이다. 이 오늘은 단절된 오늘이 아니고 과거와 연결되며,⁶¹⁾ 또한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다.⁶²⁾ 또 우리는 이 표현이 책의 초두에서부터 시작하여 책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신명기서의 통일성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5:3)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Craigie는 “계약의 본질은 그 현재적 실체(present)에 있다”고 한다.⁶³⁾ Von Rad는 “그는 과거에 속한 계약 체결의 사건을 그의 동시대 사람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도록 하려 했다”⁶⁴⁾고 한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현재화(Vergegenwärtigung)라고

59) O. T. Allis, *God Spake by Moses*(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1), p. 137. e. g., 1:10, 2:18, 4:4, 8, 38, 40, 5:1, 3, 24, 6:6, 24, 7:11, 8:1, 18, 19, 9:3, 10:8, 13, 15, 11:2, 8, 13, 26, 27, 28, 32, 12:8, 13:18, 15:5, 15, 19:9, 20:3, 26:3, 27:1, 4, 10, 28:1, 14, 15, 29:10, 15, 18, 30:2, 8, 11, 15, 16, 31:2, 21, 27 등 이외에도 많다.

60) 각주 64에 나오는 Von Rad의 말을 참조하시오.

61) 1:10, 4:4, 38, 5:24, 10:8, 11:2, 15:5 등.

62) 4:40, 11:8, 13, 27, 28, 13:18, 15:5, 28:1, 14, 15, 30:2, 16 등.

63) P. C. Craigie, *op. cit.*, p. 148.

64) Von Rad, *Deuteronomy: A Commentary*, p. 55. von Rad는 ‘오늘’이라는 말

부르기도 한다. 신명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런 특징있는 강조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5) 계약의 영속화

계약의 영속화란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말은 계약의 개신이라는 말과 통한다. 이미 헛 죽속의 조약의 연구에서 다룬 것처럼, 계약은 언제나 계약의 보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가 가르치는 계약의 영속화, 혹은 계약의 전승이라는 문제와 연관하여 교육적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⁶⁵⁾

신명기가 아주 교육적인 정열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6:4-9; 6:20-25; 11:18-25; 31:10-13). 또한 ‘가르친다’ 혹은 ‘배운다’는 뜻을 가진 *lamad*도 신명기서를 제외한 오경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⁶⁶⁾ 또한 신명기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계속 강조

을 이렇게 쓰고 있다. “Nowhere else does the impassioned endeavour to make the commandments given at Sinai relevant for its own time find such a clear expression as in the endless variations played upon the word ‘today’, which the preacher drums into the ears of his audience. This ‘today’ means both the time of Moses and that of Deuteronomy taken together.” 그의 *Old Testament Theology I*, p. 231.

65) 혹자는 이 주제가 신명기 신학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필자는 성경 어느 곳보다도 신명기는 이 주제에 관심하고 있으며, 또 이 주제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인 ‘계약’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본다. 필자는 기독교 교육의 기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본다. cf. 김정준, 「구약 신학의 이해」, pp. 253~271(교육의 신학적 과제)

66) 가르친다는 뜻으로 사용된 곳: 4:1, 5, 14, 5:31, 6:1, 11:19, 20:18, 31:19, 22, 배운다는 뜻으로 사용된 곳: 4:10, 5:1, 14:23, 17:19, 18:9.

한다(앞에 인용된 구절 참조, cf. 21:18-21). 특히 4장은 교육의 임무를 가장 명백히 해 준다. 모세는 자신이 교육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5, 14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9, 10절). 그는 가정 교육을 중시하며, 교육은 생의 전 순간에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일정한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일하는 것과, 가정과 보행과 잠자리에서 까지 이 교육적 관심을 갖도록 권고한다.(6:4-9)

신명기가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계약의 영구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모는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그 계약의 동참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구절들은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통찰력을 밝게 해 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11:2)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물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6:20, 21)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32:7)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29:14, 15)

이런 구절들로부터 우리가 얻는 통찰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과도 계약을 맺으셨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계약을 전승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⁶⁷⁾ 그러므로 교육이란 계약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계약 공동체의 존재 양식이 곧 교

육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관한 근거를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약의 장(context)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4:9)

6. 결 론

(1) 요 약

본고에서 필자는 신명기 신학에 나타난 계약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명기에 관한 기초적인 논구를 통하여 비평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명기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신명기서의 신학적 주제를 살피기 위한 시도로서 구약 신학의 조직 원리와 신명기 신학의 연구 동향 그리고 최근 계약을 신명기 신학의 주제로 보려는 보수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았다. 또한 신명기 신학의 계약적 주제를 살피는 근거로서 헛 족속의 종주권 조약 형식과 신명기서의 유추 문제를 최근까지 연구된 자료와 함께 다루어 보았다. 필자는 신명기서가 ‘계약갱신의 문서’로서 계약이라는 주제가 신명기 신학을 구성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 계약의 근거, 계약 백성의 삶, 계약의 영속화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67) cf. M. G. Kline, *op. cit.*, 66, “The family character of covenant administration requires that the children be brought under the government of the stipulation.”

(2) 결 론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신명기서가 많은 비평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된다. M. G. Kline을 중심한, 고대 근동 헛 족속의 종주권 조약과 신명기서의 연관성 연구는 매우 가치있는 연구이며, 이 연구는 신명기서의 모세 저작설과, 신명기서의 구조적 통일성 문제,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 신학의 중심 개념을 발견하는 일에 큰 시사를 준다. 신명기서는 '계약 간신의 문서'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계약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계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 계약의 근거, 계약 백성의 삶, 그리고 계약의 영속화라는 요소를 뼈대로 하는 계약 신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담긴 보고(寶庫)로 나타나는 것이다. 참으로 이 책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위를 기억하는 책이며, 감격하는 책이며, 순종과 충성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배우는 사랑의 복음인 것이다.

(3) 제 언

본 논문을 마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관계 문헌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서의 신학적 주제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앞으로 이 방면에 많은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신명기 신학의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신명기

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신명기서를 신자의 삶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본 연구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이에서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덕관. "신명기와 지혜학파." 「신학과 세계」 6(1980) : 206~231.
- 김이곤. "오경의 자료층과 그 특성." 문희석 편. 「오늘의 오경 연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 11~62.
- 김정준. 「구약 신학의 이해」. 서울 :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4.
- _____. "구약 신학의 최근 동향." 「신학사상」 12(1976. 3) : 5~34.
- _____. "신명기 신학자." 「신학사상」 13(1976. 6) : 353~382.
- _____. "오늘을 사는 신학." 「기독교사상」 212(1976. 2) : 45~57
- _____. 「폰라드의 구약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 문희석. "신명기에 나타난 설교 구조와 오늘의 의미." 「복된 말씀」 23~7 (1976) : 29~33.
- 오병세.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직과 하나님의 왕권." 「고신대 논문집」 4 (1976. 4) : 67~77.
- 윤영탁. "신명기 연구." 「신학지남」 45~1(1978. 3) : 8~27.
- 홍반식. 「구약총론」. 서울 : 성암사, 1978.
- Allis, Oswald T. *God spoke by Moses*. Nutley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1.
- _____. *The Five Books of Moses*. Nutley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3.
- Baab, Otto J.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 역. 「구약 성경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41.
- Bewer, Julius A. "The Case for the Early Date of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7(1928) : 307~321.

- Blair, Edward P. "An Appeal to Remembrance." *Interpretation* XV, 1 (1961. 1) : 41~47.
- _____. *The Book of Deuteronomy and the Book of Joshua*. 유허수 역. 「신명기·여호수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Bright, John. *Covenant and Promis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 _____.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이군호, 임태수 역. 「구약 성서의 권위」. 서울: 커迩디아사, 1979.
- Brueggeman, "The Kerygma of the Deuteronomic Historian." *Interpretation* 22 (1968) : 387~402.
- Cameron, George G. "The Law Peculiar to Deuteronomy."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I, 3(1903, 7) : 434~456.
- Clements, Ronald E. *God's Chosen People*. London: SCM, 1968.
- _____. *Prophecy and Covenant*. London: SCM, 1965.
- Cogswell, James. "Lest we Forget." *Interpretation* XV.I(1961. 1) : 32~40.
- Craigie, P.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aube, D. "The Culture of Deuteronomy." *Orientalia* 3(1969):27~52.
- Dahl, George. "The Case for the Currently Accepted Date of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7(1928) : 358~379.
-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 _____. "Covenant and Law." *Interpretation* XX(1966) : 302~321.
- Ellis, Peter F. *The Pentateuchal History*. 김윤주 역. 「모세오경」. 분도출판사, 1979.
- Freedman, D. N. "Divine Commitment and Human Obligation." *Interpretation* 18(1964) : 419~431.
- Gammie, J. G. "The Theology of Retribution in the Book of Deuteronom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2(1970) : 1~12.
- Gerstenberger, E. "Covenant and Command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4 (1965) : 38~51.
- Gottwald, N. K. "Holy war in Deuteronomy: Analysis and Critique." *The Review and Expositor* 61 (1964) : 296~310.
- Hasel,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2.
- Jocz, J. *The Covenant*. Grand Rapids: Eerdmans, 1968.
- Kaiser, Jr., Walter C. "The Center of Old Testament Theology: The Promise." *Themelios* 10(1974) : 1~10.

- _____.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Karlberg, Mark W.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3(1980. 11) : 1~57.
- Keil &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Grand Rapids: Eerdmans, 1973.
- Kitchen, Kenneth A.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1966.
- _____. "Ancient Orient 'Deuteronomism' and the Old Testament."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ed. J. B. Payne. Waco: Word Books : 1~24.
- Kline, M. G. *By Oath Consigned*. Grand Rapids: Eerdmans, 1968.
- _____. *Old Testament Theology*. printed material, n. d.
- _____. "The Correlation of the Concepts of Cannon and Covenant."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 _____.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3.
- Köhler, Ludwig. *Old Testame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 _____. "The Problem in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Semitic Studies*, 1(1956).
- Kuyper, Lester J. "The Book of Deuteronomy." *Interpretation* 3-3(1952) : 321~339.
- Lehman, Chester K. *Biblical Theology-Old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7.
- Lind, Millard C.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Scottdale: Herald Press, 1980.
- Luckenbill, D. D. "Hittite Treaties and Letters."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 37(1921) : 161~211.
- Manley, G. T. *The Book of the Law*. Grand Rapids: Eerdmans, 1957.
- McCarthy, D. J. *Old Testament Covenant*. Richmond: John Knox Press, 1972.
- _____. *Treaty and Covenant*. Analecta biblia 21, Rome, 1963.
- _____. "Notes on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and the Father-Son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Yahwe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7(1965) : 144~47.
- Mckenzie, R. A. "The Messianism of Deuteronomy." *Catholic Biblical*

- Quarterly* 19.(1957) : 299~305.
- Mendenhall, G. E. "Covenant,"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I. New York : Abingdon Press, 1962 : 714~723.
- _____.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Pittsburgh : The Biblical Colloquium, 1955.
- Miller, P. D. "The Gift of God: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Land." *Interpretation* 23(1969) : 451~465.
- Murray, John. *The Covenant of Grace*. London : Tyndale Press, 1953.
- Myers, Jacob M. "The Requisites for Response." *Interpretation* 14-1 (1961.1) : 14~31.
- Noth, Martin. *The Laws in the Pentateuch and other Essay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66.
- Newman, Murray L. Jr. *The People of the Covenant*. New York : Abingdon Press, 1962.
- Owens, J. J. "Law and Love in Deuteronomy." *The Review and Expositor* 61(1964) : 278~283.
- Paton, L. B. "The Case for the Post-exilic Origin of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7(1928).
- Payne, J. Barton. "The Birth of Yahweh." In his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Waco : Word Books, 1970 : 240~264.
- _____.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 Zondervan, 1962.
- Rowley, H. H.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 London : Lutterworth, 1950.
- Schultz, Samuel J. *Deuteronomy-The Gospel of Love*. Chicago : Moody Press, 1971.
- _____. *The Gospel of Moses*. New York : Harper & Row, 1974.
- Thompson, J. A. *Deuteronomy*. Leicester : IVP, 1974.
- Vannoy, J. Robert. *Covenant Renewal at Gilgal*. Cherry Hill : Mack Publishing Company, 1978.
- Toombs, Lawrence E. "Love and Justice in Deuteronomy." *Interpretation* 14 (1965) : 399~411.
- Von Rad, Gerhard. "Ancient Word and Living Word." *Interpretation* XV.1 (1961.1) : 3~13.
- _____. Das formgeslichthe Problem des Hextench. 김 정준 역. 「폰 라드 논문집」.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_____. *Deuteronomy : A Commentary*.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6.
- _____. *Old Testament Theology* I. New York : Harper & Row, 1962.
- _____. *Studies in Deuteronomy*. London : SCM, 1953.
- Weinfeld, M. "The Origin of Humanism in Deuteronom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0 (1961) : 241~247.
- _____. "Deuteronomy-The Present State of Inquir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1967) : 249~262.
- Wenham, Gordon J.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Book of Joshu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0 (1971) : 140~148.
- Wiener, Harold M. "Deuteronomy and the argument from styl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 4(1907) : 605~630.
- _____. "The Law of Deuteronomy and the Argument from Silenc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 2(1907) : 188~209.
- Wright, G. E. *God who Acts*. Chicago : H. Regnery, 1952.
- _____. *The Old Testament and Theology*. New York : Harper & Row, 1969.
- Young, Edward J.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1953.
- _____. *My Servants the Prophets*. Grand Rapids : Eerdmans, 1952.
- _____.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김 진홍 역. 「현대 구약 신학 연구」. 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0.
- Zimmerli, Walther.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김 정준 역. 「구약 신학」.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79.